

보도시점 2026.3.26.(목) 11:00
< 3.27.(금) 조간 >

배포

2026.3.26.(목)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력품목 수출 영향 및 현장 집행 상황 점검

- 26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별 영향 정밀 진단
- 수출바우처(185억원), 유동성 지원(24.2조원) 등 ‘현장 집행’ 점검·보완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현장 애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지난 11일 범정부 합동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정밀 진단하고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통상교섭본부장(여한구) 주재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지원방안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상 운임지수 급등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및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등 유동성 문제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이슈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물류, 유동성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집행을 차질 없이 지속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접수되는 8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운송비에 더해 반송비용, 전쟁할증료, 우회 운송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으로 24일 기준 44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105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24.2조원)도 신속 집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해 수입 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2.8조원에서 올해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약 2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수출기업을 지원 중이다.

중동 수출기업 애로에 대한 원스톱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1일 구축된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 무역협회의 ‘수출기업 물류애로 비상 대책반’, 전국 15개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간의 중동 현지 정보 공유와 수출 기업 애로 대응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물류, 유동성 애로 심화에 대응해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23일 가동된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동 고의존 품목과 연쇄 영향이 우려되는 전방산업 관련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추경 편성 절차를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신속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긴급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 패키지 등 지원책이 우리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의 전 과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3)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042)

참고1**주요 업종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 일 시 : '26. 3. 26.(목), 14:00 ~ 15:30

□ 장 소 :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종로 14) 회의실(6층 중회의실)

□ 목 적

- ① 중동 상황 등 최근 수출입 상황에 따른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전망
- ② 기업별 수출입 관련 애로 청취
- ③ 중동 상황 관련 지원기관별 지원 운영현황 및 향후 지원방안 소개

□ 참석자 : (정부) 무역정책관(주재), 무역정책과장, 수출입과장 등
(기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업) 주요 수출기업(참석 업종 :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 ~ 14:03	(3분)	• 모두 발언	무역정책관
14:03 ~ 15:03	(60분)	• 기업별 수출입 관련 현황 및 애로	참여기업
15:03 ~ 15:25	(22분)	• 지원기관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	지원기관
15:25 ~ 15:30	(5분)	• 마무리 발언	무역정책관

※ 무역정책관 모두발언까지 공개

참고2

중동 전쟁 관련 애로 지원 창구 현황

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요 지원 기능
< 코트라 > 중동전쟁 긴급대응 애로 상담 데스크	①1600-7119(→2번→4번) ②02-3460-3387(이란 문의) (www.kotra.or.kr/SubList/41000064001)	○ 중동 전쟁 관련 수출기업 상담 - 현지 동향 등 정보 제공 및 긴급 바우처 등 지원 사업 안내
< 무역협회 > 수출기업 물류애로 비상대책반	02-6000-5935 (www.kita.net)	○ 중동 전쟁 관련 물류애로 상담 - 상시 애로 접수, 지원사업 매칭 지원 및 물류 동향 소식지 발간·배포
< 중기부 >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서울) 02-2110-6330 (부산) 051-601-5165 (대구경북) 053-659-2241 (광주전남) 062-360-9192 (제주) 064-753-8757 (경기) 031-201-6945 (경기북부) 031-820-9033 (대전세종) 042-865-6153 (울산) 052-210-0063 (인천) 032-450-1136 (강원) 033-260-1675 (충북) 043-230-5388 (충남) 041-415-0607 (전북) 063-210-6482 (경남) 055-268-2545	○ 중동 전쟁 관련 中企 피해 상담 - 물류·자금 등 수출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 산업부 >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1670-7072	○ 범부처 중동 상황 수급애로 전담 대응 - 핵심 품목 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수급 애로 집중 관리